

남성해운

남성해운재팬, 신임사장에 박영진씨 선임

남성해운(회장 김영치)과 관계사인 동영해운의 일본 총대리점인 남성해운재팬은 지난 9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 총회와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 이사 사장으로 박영진씨를 선임했다. 박영진 사장은 지난 3월말까지 동영해운 사장을 역임했었다.

대림코퍼레이션

500억원 규모 무보증사채 발행

대림코퍼레이션(사장 기의석)이 총 5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이번 무보증 사채는 제 15회 권면이자율은 4.69%이다. 모집방법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이다.

이번 이번 자금은 차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상환기일은 오는 2014년 10월 18일이다.

한편 이번 무보증사채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은 A+,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등급은 A+, NICE신용평가(주) 신용등급 A+로 평가했다.

대한통운

택배 서비스품질 인정받아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와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에서 각각 택배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9월 29일 밝혔다.

특히 대한통운은 이번 1위 선정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CSI 택배부문 1위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로 스무 해를 맞은 KCSI 조사에서 택배부문 총 6회 1위에 선정됨으로써 'KCSI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한국표준협회 KS-QEI가 올해 처음 평가를 시작한 택배부문에서는 첫 1위 기업이 됐다.

이에 대한통운은 "지난 6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VOC-MS: Voice Of Customer-Management System)' 인증에서 택배부문 1위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1위에 오르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통운은 지난해 연간 2억 2600만 상자의 택배화물을 취급한 바 있다.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압도적 통과

대한해운(사장 박재민)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해운 채권자 집회에서 대한해운이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찬반투표결과 담보권자 조 100%, 회생채권자 조 84.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파산부는 채권자와 주주 모두 공정형평의 원칙을 지킨 회생계획안이라며 대한해운의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이에따라 대한해운의 주식거래는 일시정지됐으며, 10월 17일부터 거래가 다시재개된 이후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다시 거래가 정지된다. 법정관리 인가효력은 출자전환(유상증자)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감안해 20일이후에 발생하게된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수정회생계획안의 변경된 내용은 출자전화금액을 당초 주당 1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채권자들의 이익을 더욱 보강한 바 있다.

대한해운의 확정채무액은 회생담보권 38억원, 회생채권 2조 4,326억원, 조세채권 7억 7,000만원 등 모두 2조 4,372억원이다.

이어 조사확정재판중이거나 부인한 채권증 추후 현실화가 예상되는 미확정채무는 1조 1,658억 원으로 따라서 채무자의 총채무액은 3조 6,031 억원이다.

이날 대한해운의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의 홍순호 회계사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조사 의견에 대해 "채무자는 회생절차 기간인 2021년까지 영업활동을 통하여 1조7,799 억원의 현금유입액이 예상되며, 기초이월현금 483억원과 유형자산 등에 대한 순현금흐름액 308억원, 신규차입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 7,584억원을 고려하면 총 1조 1,00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SK해운

2천억 무보증사채 발행

SK해운(사장 황규호)은 4년물(제18-1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500억원과 5년물(제18-2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 등 2,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 중 700억원을 특수관계인인 SK증권(주)가 인수하게된다.

4년물 500억원의 이자율은 5.40%, 5년물 1,500억원은 5.65%다.

자금의 사용목적은 1,500억원은 벙커(선박연료유) 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500억원은 선박관련 시설자금으로 각각 사용하게된다.

한편 SK해운은 2011년 상반기말 현재 해외 현지법인의 선박을 포함해 모두 39척의 선박(지분투자선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프사이즈 벌커 9척, 수프라막스 7척, VLCC(초대형유조선) 8척, VLGC(초대형제품운반선) 2척, VLOC(초대형광석운반선) 1척 등 27척의 신조선을 발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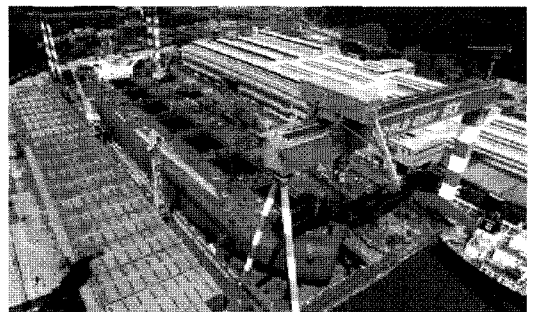
신조중인 선박은 2011 ~ 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발주된 선박 총 27척 중 일부

선박은 계열사와 원가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위해 도입하는 선박으로 계열사 등의 적하보증이 제공되고 있다.

STX팬오션

40만톤급 VLOC 인수

STX팬오션(회장 이종철)은 9월 27일 40 만톤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Very Large Ore Carrier)인 'VALE BEIJING(발레 베이징)'호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VALE BEIJING(발레 베이징)'호는 길이 361m, 폭 65m 높이 30.5m 규모의 초대형 벌크선으로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건조됐다.

이날 명명식에 참석한 조계룡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 선박은 새롭게 도입한 수출기반보험으로 지원한 3척의 선박 중 첫 번째로 인도되는 뜻 깊은 선박이다"라며 "STX팬오션이 세계 일류 해운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인수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은 축구장 3개 반 정도의 크기에 15톤 덤프트럭 2만 6,700대 분인 총 40만 톤의 철광석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현존하는 벌크 선박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이다.

STX팬오션은 지난 2009년 9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와 최대 약 7조 규모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40

만 톤급 VLOC 8척을 발주한 바 있다. VALE BEIJING(발레 베이징)호는 발주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 중 첫 번째로 인도 받는 선박이다.

VALE BEIJING(발레 베이징) 호는 브라질·중국/유럽간 항로에 투입되어 향후 25년간 Vale사의 철광석 수송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7척 또한 2011년에 1척, 2012년에 4척, 2013년에 2척을 인도받아 순차적으로 동 비즈니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STX팬오션은 업계 최초로 초대형 벌크선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게 되어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대 화주 영업력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최근 노후 선박 해체 증가와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요 증가로 인해 케 이프사이즈 중심으로 BDI(건화물 운임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이와 맞물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초대형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이 가시화 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STX팬오션은 벌크선 50척, 탱커 20척, 컨테이너 8척, 자동차선 4척, LNG전용선 및 중량물 운반선을 포함한 총 84척의 사선대를 보유하게 됐다. 300여척의 용선선을 포함하면 현재 운용선대가 380여척에 달한다.

장금상선

아키타/토마코마이 기항 강화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부산-북일본·호쿠리쿠(아키타/니가타/나오에쓰/토야마 심미나토/츠

루가)간 컨테이너항로에서 9월 말부터 아키타항 기항을 주 2회로 강화하였다.

장금상선은 올해 4월부터 아키타항에 매주(월)의 정기 기항을 개시하고 있지만, 새롭게 홍아해운으로부터의 스페이스차터에 의한 매주(토)의 기항편을 추가해 주 2회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또 장금상선은 부산-홋카이도(토마코마이/이시카리)간 컨테이너항로에서 토마코마이 기항도 9월 말부터 주 2회로 증편하였다. 역시 홍아해운에서 스페이스를 빌려 서비스하게된 것이다.

창명해운

상반기 449억 영업이익의 시현

창명해운(대표 이경재)은 2011년 상반기 449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회사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379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9% 감소했다.

창명해운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449억원, 세후당기순이익은 1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기존 회계제도의 영업이익은 순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을 표기하며,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외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고 있다.

KSS해운

미츠이물산이 선박 2척 대선

KSS해운(사장 윤장희)은 9월 4일 일본 미츠이물산에 선박 2척을 장기대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선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770억원이다.

KSS해운은 이를위해 590억원을 투자해 3만 5,000CBM급 LPG선 1척과 Ammonia 운반선 1척을 신조 발주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美 타깃, 현대상선 '최우수 물류기업' 선정



현대상선(대표이사 이석희)이 미국 유통기업 타깃(Target)社로부터 'Provider of the Year(올해의 최우수 물류기업)'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타깃사는 2011년 美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 중 33위에 오르는 등 대표적 유통기업이다. 매년 해운기업 등 400여개 물류 관련 협력업체의 서비스를 심사,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현대상선은 정확한 선박 스케줄과 화물 수송시간 준수, 선진화된 전자상거래(EDI) 시스템, 대고객 서비스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을 최우선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화주와 신뢰를 쌓은 점이 이번 수상한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타깃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美 타깃사로부터 2006년, 2009년에

도 '최우수 물류기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日 '소니' 사로부터 8년 연속 '최우수 선사상' 수상, 美 물류 전문지 '월드 트레이드' 선정 '2010년 최우수 파트너상' 수상, 美 물류 전문지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 선정 9년 연속 우수선사 수상 등 세계적으로 수송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진해운

한국-서인도 직기항 서비스 개시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한진해운이 10월 29일부터 한국-서인도를 직기항하는 신규 항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ICS(India China Service)로 명명된 이번 노선은 NYK, Evergreen과 공동운항의 형태로 운영되며 2,500TEU급 선박 총 5척 중 한진해운이 1척, Evergreen이 1척, NYK가 3척을 투입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서인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진해운의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판매력 강화 및 수익성화물 유치 확대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ICS서비스의 기항지로는 부산-상해-닝보-세코우-싱가포르-나바세바(인도)-피파바브(인도)-콜롬보(스리랑카)-싱가포르-홍콩 (1 Round Voyage 35일 소요)순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도선사, 진단업무의 책임감 있는 참여 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해사안전연구센터 조익순 소장이 도선사에게 “진단업무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

1일 개최된 ‘제1회 도선 운영 발전 세미나’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해사안전연구센터 조익순 소장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도선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익순 소장은 진단업무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부탁하면서 “도선사는 해상안전에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기적인 이익추구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험치 접근보다 객관적 근거 제시를 통한 안정성 주장 및 일반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상교통안전진단(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이란 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협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결정이전에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진단대행업자에게 진단대상사업의 의한 항행안전 위협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해,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대상사업이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 부설 또는 보수(교량, 터널 중 해상횡단교량, 항만구역, 항로지정방식, 특정해역 등에 부설되는 케이블),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 재개발(항만 기본계획 수립변경,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그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국토해양부령)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해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진단대상사업이며,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은 자체진단서(간이진단서) 제출 가능하다.

이날 조익순 소장은 “안전진단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진단을 통해 오류 및 갈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결함 및 안전결함을 진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항행안전에 위협하는 요소를 총체적이고 다목적 방식으로 진단을 통해 방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조익순 소장은 “특히 이러한 안전진단은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위험률을 감소시켜 선박안전성 및 수역이용도를 고려한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이용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 사업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익순 소장은 “사업에 대해 도선사 개인별 편차가 비교적 크다”며 “도선사협회 차원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개인자격이 아닌 조직적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케이엘넷

신규 이사선임위한 주총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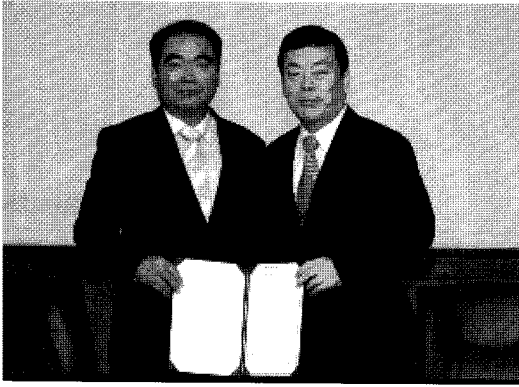
케이엘넷(대표 정유섭)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요내용은 정관일부 변경, 이사선임 등이다.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이사로는 사내 이사직에 정지원 경동섬유 대표이사, 기타비상무 이사직에 이경인 코아뱅크 대표이사, 조찬섭 명진선박 대표이사이며, 사외이사로는 윤철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선임된다.

한국선급

선박용 LED개발 MOU 체결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9월 29일 전문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인 대광라이텍과 선박용 LED 조명장치 개발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양사는 LED 사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전문 인력 상호 양성 및 인적교류, 개발된 LED 제품에 대한 한국선급의 국제 공인 인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대광라이텍 강민규 회장은 “대광라이텍의 제품이 한국선급과 같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선급의 인증을 받음으로서 해외시장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은 “미래 친환경 조명으로 각광받는 LED는 현재 미국등 서구선진국에서 국제 표준 체계를 선점하려는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제품이다”이라고 말하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단시간 내 세계 최고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선박용 LED 조명 개발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LED 조명은 기존 조명장치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미래 친환경 조명장치로서 의약품 원료 개발부터 의료기기, 식물재배에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에 적용했을 시 기

존 조명대비 약 80%의 에너지를 절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역 해상 부유쓰레기 증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 여수지사가 지난 10년간 5월~8월 기간 동안의 여수해역 부유쓰레기 양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량이 지난 10년간 연 평균 9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내년 5월~8월3개월간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 행사장의 해상 부유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400mm이상의 비가 내리는 7월~8월에는 평균 6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2009년부터 2011년 여수 해역에서는 130톤 이상의 많은 쓰레기가 수거돼 내년 박람회 기간 중 해상 부유쓰레기 발생 방지 및 수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시청과 함께 해상 부유쓰레기가 박람회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전문 청향선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유쓰레기가 대량 유입될 경우, 우리 공단 인접지사의 전문 청향선을 추가

로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국해운조합

포워더도 해운조합 공제 이용 가능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 가능하게 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를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중 광동성 기업인 초청 평택항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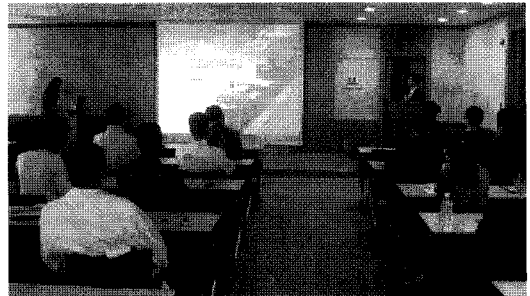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9월 21일 광동성의 기업인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초청,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 및 평택항 화물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의 투자환경, 지리적 이

점을 바탕으로 한 평택항의 경쟁력을 집중 설명했다.

평택항은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대중국 교역항으로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항만주변이 자연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 장점 중의 하나다.

평택항만공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은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고 있어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상시 입출항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수출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여객 처리실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눈부신 성장을 할 항만”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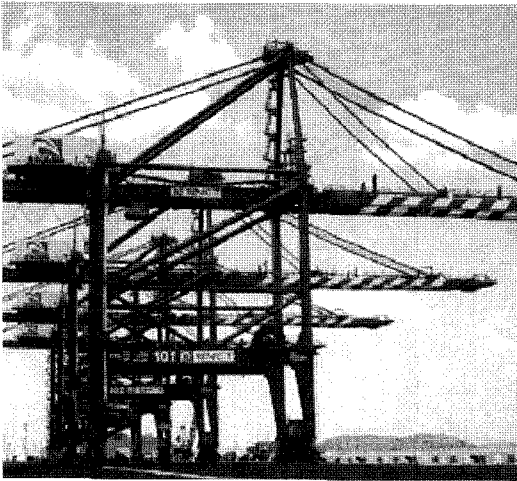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경기도에 대한 투자환경과 경쟁력,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소개와 평택항의 부두운영 현황과 항만지원 서비스, 한국진출 중국합작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업인들은 항만 안내선에 승선해 평택항 부두시설 및 자유무역지역인 배후단지 등을 견학했다.

광동성 기업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직접 와서 보니 중국의 화물이 왜 평택항으로 몰리는지 알겠다”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삼성전자, LG, 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현재 항로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광동성 기업인 대표단을 비롯해, 경기도 투자진흥과, KOTRA 신흥자본유치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 2~3단계 연말 개장
하역장비 반입완료, 테스트 중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빠르면 올해 연말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와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BNCT)에 따르면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상부시설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컨테이너 크레인, 스트레들 캐리어, 야드트랙터, 샤프 등 하역장비들도 최근 모두 입고가 완료돼 설치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연말께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부산신항 남측에 건설중인 컨테이너 터미널로 총면적은 총 84만m², 안벽길이는 1500m에 달하며 5만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BNCT는 2~3단계에 우선 포스트파나막스급 컨테이너 크레인 8기, 스트레들캐리어 20기 등을

투입하고 향후 컨테이너 크레인은 12기, 스트레들캐리어 30기 체제로 확충해 연간 270만teu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2~3단계의 터미널 운영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수직배열 방식의 무인자동화 야드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트레들캐리어가 최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BNCT 관계자는 “수직배열 방식과 스트레들캐리어의 조합을 통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터미널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어서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BNCT는 컨테이너 크레인, 스트레들캐리어 등 장비를 다룰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산항운노조와 협상을 통해 장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BNCT가 올해말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BNCT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CMA-CGM, 고려해운 등의 선박들이 차례로 전배 조치될 예정이다. BNCT의 실질적인 운영은 BNCT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지스, KCTC 등 하역사들이 합작으로 만든 INKC가 맡게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 획득

지난 9월 19일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상조)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순조로운 향해를 시작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옛 한신정평가)로부터

‘AAA(안정적)’, 일본 신용평가사인 R&I(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사로부터 ‘A+(안정적)’의 신용등급을 각각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YGPA가 획득한 국내 신용등급 ‘AAA’는 정부의 신용도와 동일한 최고 등급이며, 해외 신용등급 ‘A+’ 또한 한국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YGPA가 출범과 동시에 우수한 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동량 부문 국내 2위 항만인 여수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1조5523억원에 이르는 국유재산 출자에 따른 재무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옛(舊)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대규모 항만 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른 투자부담 감소 등도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모아진 적립금 중 일부분과 그와 동일한 금액을 UPA가 후원한 것으로, 세번째 희망의 집인 강혜지 양의 집과, 네 번째 희망의 집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김거룩 군의 집에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매칭그랜트 제도에 흔쾌히 동참한 UPA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칭그랜트 제도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matching)시켜 내는 것을 말한다.

인천항만공사

2020 New Vision 선포식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9월 26일 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임직원과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을 위한 New Vision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New Vision 선포식은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이념 및 핵심가치와 더불어 2020년 경영목표를 발표하고 ‘The First Infra & Best Service Company’ 최고의 항만 인프라지원 및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 및 발전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New Vision은 인천항만공사가 태동기(제1기), 안정기(제2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를 준비하는 비전이 필요했고 △디테일한 업무처리(Attention to Details), △커뮤니케이션 활성화(Interactive Communication), △기본과 원칙중시(Back to the Basic), △끊임없는 자기개발(Continuous Education)의 경영이념과 ▲ ‘도전’(Challenge), ▲ ‘창조’(Creation), ▲ ‘변화’

울산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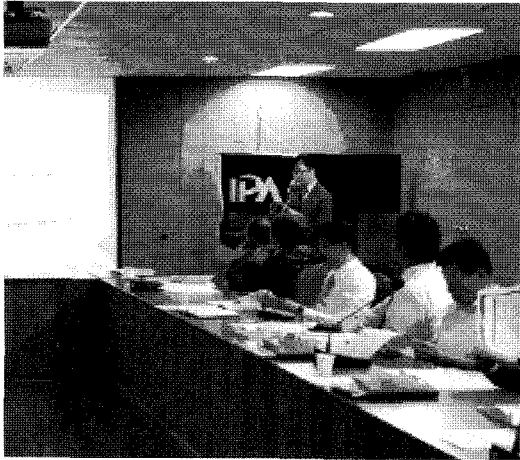
추석명절 저소득가정 후원금 전달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가정 후원금 3백만 원을 어린이복지재단에 9월 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1월 UPA에서 도입

(Change), ▲ ‘헌신’ (Commitment)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인천항만공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경영기획팀에 따르면, New Vision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1억3,000톤인 전체 화물 물동량을 2020년까지 2억톤으로, 740억원 수준인 매출을 2천억원으로 11%대인 영업이익률을 20%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전체 공공기관중 1위를 달성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항만 체계구축, 미래성장 동력확보, 고객중심 항만운영, 기업가치 효율제고 등 4개의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충하고 최상의 항만 안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강화, 그린포트 조성을 강화하고, 항만생산성 및 글로벌 마케팅 확대, 기업문화 선진화 및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비전에 대한 공약보다 선포한 비전을 전 임직원이 가슴 깊이 되새겨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여 인천항을 더욱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자”고 당부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예비해기사 180명 승선 · 23일간 항해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9월 22일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내 부두에서 ‘2011학년도 2학기 원양항해실습 출항식’을 가졌다.

이번 원양항해실습에는 해사대학 3학년 학생 180명이 참가하며 교수와 승무원 등과 함께 한바다호와 한나라호에 나눠 타고 부산을 출항, 중국과 일본에 기항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역량을 지닌 해기 전문인으로서의 경험을 쌓고 돌아올 예정이다.

한바다호와 한나라호는 다음달 14일까지 23일 동안 각각 부산 → 중국 웨이하이 → 중국 닝보 → 일본 히로시마, 부산 → 중국 칭다오 → 일본 후쿠오카 → 일본 오사카 순으로 각각 항해한다.

학생들은 항해과정에서 우수 해기사로서 갖춰야 할 선박운용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실습뿐만 아니라 현지 항만국 등 한국해양대와 국제교류협력을 맺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의와 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동문들을 실습선에 초청하여 선상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해외 동문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북돋우고 대학 및 동문 상호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해양대는 해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사대학 학생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원양항해실습을 실시하도록 해왔다.

한바다호는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순수 2005년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된 동양 최대 규모의 실습선으로 전장 117.2미터(m), 총 톤수 6,686톤(ton), 최대 속력 19노트(knots)이다. 지난 1993년 건조된 한나라호는 전장 102.7미터, 총 톤수 3,640톤, 최대 속력 17노트이다.